손흥민 '리그 20골' 돌파 … PL 득점왕 두발짝 남았다

리버풀전 선제골 … 통산 90호 골
아시아 선수 유럽 5대리그 최초
PL 득점 1위 살라와 단 2골 차
PK 없는 20골 유럽 5대리그 유일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단일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써 내려가는 '월드클래스 골잡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한 시즌 20호 골 고지까지 밟았다.

이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의 유럽 프로축구 1부리그 한 시즌 최다 골까지 바라본다.

손흥민은 8일 열린 리버풀과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1-1 무승부)에서 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리그 32번째 출전 경기에서 넣은 20호 골이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90호 골(229경기)이기도 했다. '100호 골'도 가시권이다.

손흥민은 이미 1일 레스터 시티와의 35라운드에서 리그 18, 19호 골을 터뜨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 소속으로 남긴 17골을 앞지르며 한국 선수 유럽 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이른바 유럽 5대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스페인 프리메라리가·독일 분데스리가·프랑스 리그1·이탈리아 세리에A를 통틀어 아시아 선수의 역대 한 시즌 최다 골 신기록이었다.

그러고 나서 리그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을 상대로 기록을 20골로 새로 썼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에서 넣은 1골을 더하면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공식전 득점은 21골이다. 2020-2021시즌 작성한 자신의 역대 한 시즌 공식전 최다 골(22골)에는 1골 차로 다가섰다.

손흥민이 남은 세 경기에서 한 골만 더 넣으면 아시아 선수의 유럽 1부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에도 타이를 이룬다.현재 이 부문 기록은 이란 국가대표 공격수 알리레자 자한바크시(페예노르르)가 갖고 있다. 자한바크시는 AZ알크마르에서 뛰던 2017-2018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 33경기에 출전해 21골을 몰아넣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유럽 1부리그 득점왕에 오른 바 있다.

손흥민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를 달리며 아시아인 최초의 유럽 5대 리그 득점왕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득점 선두는 이날 손흥민의 20호 골을 지켜본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이집트·33경기 22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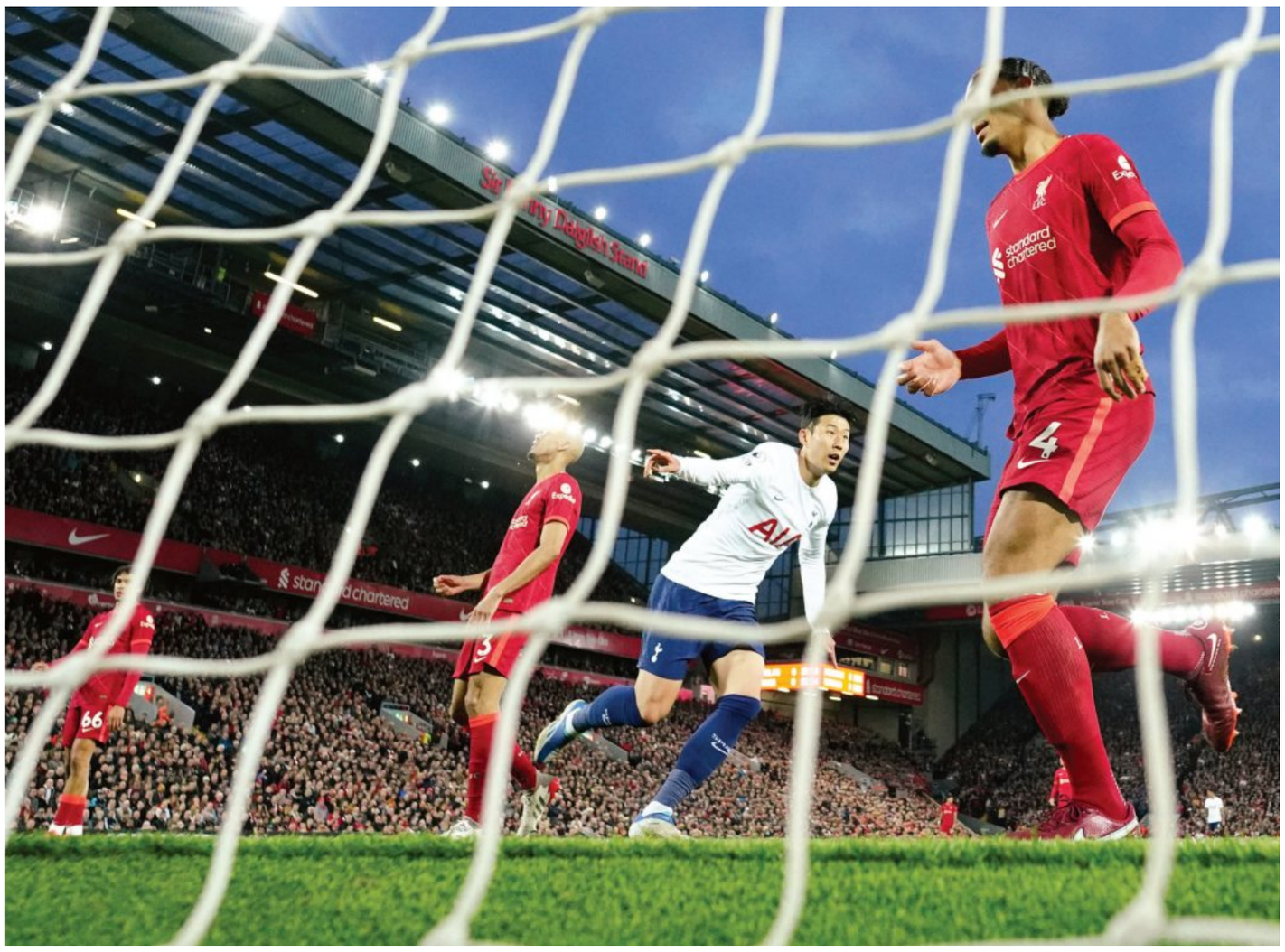
손흥민은 올 시즌 20골 중 페널티킥 골이 하나도 없다. 살라는 22골 중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다.

축구 통계 전문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2022년 들어 프리미어에서 12골을 넣고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작성해 두 부문 모두 리그 1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특히 최근 리그 7경기에서는 9골을 터트렸고, 그중 3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할 정도로 기세가 무섭다.

반면 살라는 최근 7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리버풀 4-0 승) 2골이 득점의 전부다.

새 역사를 쓰는 손흥민의 도전은 진행형이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8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1-2022 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수리 만나면 힘나는 호랑이

KIA, 한화에 7-6 승리
올 시즌 두 번 모두 스윕승

'호랑이 군단'이 홈런 행진을 펼치면서 6연패 뒤 5연승을 내달렸다.

KIA 타이거즈가 8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7-6승리를 거뒀다. KIA는 이날 승리로 한화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도 스윕승을 장식했다.

KIA의 외국인 선수 션 놀린은 6번째 등판 끝에 KBO 데뷔승을 거뒀다.

홈런으로 KIA가 연승을 이었다.

지난 5일 키움을 상대로 박동원의 연타석 홈런 등 3홈런을 작렬했던 KIA는 한화와의 주말 3연전에서도 모두 홈런포를 날렸다.

6일 황대인이 첫 타석에서 3점포로 승기를 가져왔고, 7일에는 류지혁의 1회초 선두타자 홈런과 황대인의 두 경기 연속 홈런이 나왔다. 8일에는 나성범이 투런포를 터트리는 등 KIA가 홈런으로 분위기 싸움을 주도했다.

2회초 최형우가 선두타자로 나와 우중간 2루타로 공격을 열었다. 소크라테스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황대인의 우중간 안타와 이우성의 볼넷으로 KIA가 1사 만루를 만들었다.

박찬호가 중견수 방향으로 멀리 공을 보내면서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3회에는 1사에서 나성범과 박동원이 각각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고, 최형우의 적시타로 나성범이 홈에 들어왔다. 박동원의 주루사가 아쉬웠지만 4회 KIA가 나성범의 투런포 등을 더해 4점을 만들었다.

황대인의 몸에 맞는 볼에 이어 이우성의 우전 안타가 나왔다. 박찬호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사 2·3루, 류지혁의 잘맞은 타구가 2루수 직선타가 됐지만 김선빈이 좌전 안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나성범이 한화 선발 윤대경의 직구를 밀어서 좌측 담장을 넘기며 6-0을 만들었다.

초반 화력이 폭발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놀린이 1·2회를 제외하고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면서 어려운 승부를 펼쳤다.

놀린이 4회말 터크먼의 2루타를 시작으로 노시환, 김인환, 하주석에게 연속 4안타를 맞았다. 놀린은 대량 실점의 위기에서 대타 김태연을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하는 등 4회를 1실점으로 막았다.

하지만 6회 1사에서 김인환과 하주석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고, 노수광의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에 2실점을 했다.

결국 놀린은 6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홍상삼으로 투수가 교체됐다. 1사 3루에서 등판한 홍상삼은 3루수 땅볼과 헛스윙 삼진으로 위기를 정리했다.

하지만 필승조가 어렵게 이닝을 풀어가면서 향방을 알 수 없는 막판 싸움이 전개됐다.

7-3으로 앞선 7회 전상현이 정은원에게 우월 솔로포를 내주면서 7-4가 됐다. 8회에는 장현식이 2사에서 아쉬운 수비 속 노수광에게 3루타를 허용했다. 실점 없이 8회는 마무리됐지만, 정해영이 등판한 9회가 길었다.

정해영이 대타 박정현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정은원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대타 박상언의 좌측 2루타로 1사 2·3루, 터크먼의 우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7-5가 됐다.

2점 차에서 정해영이 노시환에게 두 번째 볼넷을 허용했고, 김인환에게 우중간 적시타를 맞았다.

7-6 그리고 2사 3루에서 하주석과의 승부가 펼쳐졌다. 2구째 승부 끝에 하주석의 타구가 1루로 향했고, 공을 잡은 황대인이 그대로 베이스를 밟으면서 KIA의 5연승이 완성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엄지성이 지난 7일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12분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엄지성 결승골… K리그2 선두 질주

서울이랜드에 1-0 승리

광주FC가 안방 8연승과 함께 1위 질주를 이어갔다.

광주는 지난 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2 서울이랜드와의 14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2분 터진 엄지성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8경기 연속 무패(7승 1무)를 달리면서 1위 자리를 지킨 광주는 홈 8연승까지 동시에 이루면서 홈팬들을 웃게 했다.

전반 13분 이순민이 오른발 슈팅과 함께 광주의 공세가 시작된다. 전반 14분에는 김종우의 중거리 슈팅이 나왔지만 상대 골키퍼 윤보상 품에 안겼다.

22분에는 이순민이 중원에서 길게 올려준 공을 잡은 마이키가 상대 수비진을 뚫고 터닝 슈팅을 날렸지만, 이번에도 윤보상에게 막혔다.

전반 30분에 나온 하승운의 위력적인 오른발 슈팅도 윤보상이 쳐내면서 '0'이 균형이 계속됐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박한빈의 슈팅이 서울이랜드 서보민의 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을 기대했던 상황.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고 전반전이 0-0으로 마무리됐다.

광주 이정효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마이키, 하승운, 김종우를 대신해 헤이스, 엄지성, 정호연을 한 번에 투입하면서 전력을 재정비했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전개됐고, 후반전 광주의 첫 슈팅이 골로 연결됐다.

후반 12분 '광탄 소년단'이 선제골을 합작했다.

왼쪽 측면에 있던 허율이 왼발로 중앙에 있던 정호연에게 패스했고, 정호연은 페널티지역으로 침투한 엄지성에게 공을 넘겼다. 이어 엄지성이 오른발로 때린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 맞고 골망을 흔들었다.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지만 골키퍼 김경민이 연달아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면서 서울이랜드의 공세를 막았다.

후반 32분 김인성의 슈팅을 막아낸 김경민이 후반 41분 이성윤의 오른발로 때린 공이 골대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쳐냈다.

김경민의 호수비 뒤 바로 광주의 공격이 이어졌고, 박한빈의 매서운 슈팅이 나왔지만 아쉽게 윤보상에게 막혔다. 하지만 광주는 4분의 추가 시간을 잘 막으면서 1-0 승리를 기록했다.

홈 8연승을 지휘한 이정효 감독은 "2경기를 연속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준비한 대로 찬스를 많이 만들고, 볼도 많이 소유하는 등 공격적인 면을 보여줬다"며 "찬스를 많이 맞은 것에 비해서 득점이 안 나온 부분을 앞으로 숙제로 안고 가면서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팬들이 찾아오셨는데 선수들이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서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더 잘 할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며 선수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무실점 경기를 장식한 골키퍼 김경민은 "홈에서만큼은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감독님 코치님들이 홈경기만큼은 재미있는 경기, 다음이 기대되는 경기를 하자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팬들께 다음이 기대되는 경기를 한 것 같다"며 "공 오는 것을 막는 생각을 많이 한다. 훈련할 때 말씀해주시는 게 공을 끝까지 본다면 못 막을 공이 없고, 몸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친정팀과의 경기였지만) 평정심으로 경기를 하려고 했다. 경쟁하면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정수 U-23 축구대표팀 수석코치

"K리그 발전 '스타 선수' 육성 절실"

U-23 축구대표팀의 김정수 수석코치가 리그 발전을 위해 '스타 선수' 육성을 강조했다.

김 수석코치는 지난 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찾아 광주FC와 서울이랜드의 K리그2 14라운드 경기를 지켜봤다.

K리그의 미래는 물론 대표팀을 이끌어갈 신진 선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걸음을 한 김 수석코치에게는 익숙한 고향 방문이기도 했다. 금호고 출신인 그는 광주FC의 창단 첫해인 2011년과 2012년 코치로 고향팀에서 지도자 생활도 했다.

김 수석코치가 경기장을 찾은 이날 광주는 엄지성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어렸을 때 봤던 선수인데 프로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A매치 데뷔전에서도 데뷔골을 넣기도 했다"며 웃음을 보인 그는 "아직 더 배우고 좋아져야 한다. 좋은 재능을 갖춘 만큼 더 큰 선수로 성장해야 한다"고 애정 어린 덕담을 남겼다.

김 수석코치는 2019년 U17 대표팀 사령탑으로 한국의 역대 세 번째 8강을 이끌었다. 금호고 2학년이었던 엄지성은 이 대회에서 브라질의 호나우지뉴를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리고 금호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엄지성은 엄원상과 함께 '금호도 엄듀오'로 주목 받았고, 엄원상이 떠난 올 시즌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열악한 시민구단의 상황을 생각하면 '스타 선수'는 광주 현재와 미래의 밑바탕이다.

김정수 코치

김 수석코치는 "광주 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에서 스타 선수를 키워야 한다. 축구는 하나의 산업이고, 프로는 비즈니스다"며 "구단은 물론 선수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 축구 선수들에게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고 목표인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구단, 선수가 다 같이 노력해서 스타 선수를 만들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 선수' 발굴을 통한 리그의 발전이 한국 축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광주 유스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선수들이 더 큰 선수로 성장해서 리그에 파급효과를 주고 전체적인 축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어린 선수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